

新國際秩序와 韓國民族主義

金 東 成*

목 차

- I. 冷戰體制와 민족주의 문제
- II. 新國際秩序하의 민족주의 意義
- III.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 IV. 한국민족주의의 지향방향

I. 冷戰體制와 민족주의 문제

1990년대에 들어선 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汎世界的 對外環境은 과거 冷戰體制에서의 국제관계 및 국가간의 행위양식과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시기적으로도 현 시점은 21세기를 바로 앞두고 있는 것이어서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는 그 내포하는 의미가 신대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까지 특히 東亞細亞 국제정치의 역동성은 냉전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미국과 소련의 헤게모니를 양축으로 한 兩極體制하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축의 어느 한편과 군사안보동맹을 유지하거나 혹은 각 진영내에서 타자간 전략적 협력체제를 형성해 왔다. 그리고 결과로 독특한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美國과 蘇聯은 자기 진영하의 개별국가의 지지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립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각기 친미적, 친소적 지배구조를 유지해야 했고 이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국가간 수준에서 원조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놓아야 했다. 그 반대급부로 양진영내 개별국가들은 민족적 자주와 민족자존에 관련

* 중앙대학교 교수

된 주장과 운동의 분출을 억제해야 했던 것이다.

냉전체제하에서 각 진영내 약소국 혹은 개별 민족집단에 의한 민족주의 주장은 기존세계질서의 안정유지에 유해한 것으로 취급되어져 왔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진영내의 개별국가에서 민족주의는 정의롭든 않든 간에 미국의 의도와 세계전략을 충직하게 실천해 나가는 국가 및 시민사회의 엘리트 즉 지배세력에 대한 민중부문의 계급투쟁적 요소를 내포하는 것이고, 현상의 변경을 의도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의 우방들은 계속적으로 국내적인 정치갈등을 경험해왔고 이 경우 예외없이 민족주의 운동과 연관되어져 왔다. 우방국들의 많은 경우 지배세력에 의한 독재와 탄압이 자행되어져 왔는데 이때 미국은 그 자신이 내세워온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등 보편적인 가치의 준수와 현실주의적 세계전략 추구와의 양자간에 딜레마에 빠지곤 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反共이데올로기와 안보를 내건 철권지배세력을 비호해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로 국가차원에서는 건실한 반공진영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 동맹국의 국내정치에서는 지하에서의 反美的 民族主義 확산을 부채질해왔던 것이다.

한편 소련의 입장 또한 미국과 다소 양식은 다르나 민족주의를 소련주도의 공산체제 질서유지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아온데는 마찬가지다. 다만 소련의 경우는 자유진영의 주변국가들과 제3세계에서의 민족주의가 대체로 反美색채를 띄어왔기에 종종 이를 지원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은 공산혁명의 전략적 차원에서 민족주의의 가치를 인정해온 것이지, 蘇聯邦내의 민족분리독립을 철저히 경계해왔고 동구 공산진영국가들에 있어서의 민족주의 분출을 철저히 탄압해 왔다.

이렇듯 냉전체제하에서는 양극체제적 성격 때문에 개별 민족주의 분출은 억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한편 개별 국가들내에서도 민족주의 운동은 반체제 및 반정부운동의 한 흐름으로 간주되어져 왔고, 따라서 민족주의문제가 상대적으로 주요 쟁점화되는 것이 우려되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등장한 정치현상중 괄목한 것이 곧 동구권 국가들에 의한 민족주의 추세와 소련의 와해이며 중동, 동남아 등지를 포함한 범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민족주의의 대두이다.

II. 新國際秩序하의 민족주의 意義

그러면 이제 탈냉전에 따른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왜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과연 주요문제로 취급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 답은 우선 신국제질서 형성과정하의 국제관계구조와 각 국가 형태의 특징적 변화와 그 의의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에 신세계질서하의 국제체제유형을 예견하는 견해중 가장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주장은 미국이 政治·軍事적으로 “一國 헤게모니”를 당분간 유지하게 되며 국제경제체제적 측면에서는 多極體制유형이 형성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미국이 과연 政治·軍事적으로 “一國 헤게모니”를 계속 지탱시켜 나갈 수 있는 국내외적 능력이 충분하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미국 자체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軍備조달의 문제가 있고 이와 더불어 “一國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서는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中·日등의 협력과 지지의 관계가 필수적임에 따른 한계의 문제이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와 군사안보의 가치에 바탕둔 대립지향성이 소멸되고 경제제일주의적 개별적 국가이익추구의 경향은 결국 과거 냉전시대에 비해 미국중심의 국가간 결속을 약화시키고 있고, 결국 자신의 문제해결은 자기 손을 통해서라는 개별주의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韓半島 주변상황을 보더라도 南北韓 및 주변국가들간의 국가간 관계는 점차 개별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과거 소련진영의 가상적 위협에 대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번영을 희구하던 日本은 이제 소련의 붕괴에 따라 새로운 독자적 대외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미·일 안보협력구도에서 이탈한 것은 아니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동남아제국들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고, PKO참여 등 적극적 UN활동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중국나름대로 과거 소련의 위협을 상정한 미·중·일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중시 패턴에서 탈피하여 근래에는 「和平演變」에 대한 경각심 고양과 더불어, 「獨立自由外交」의 기치하에 외세에 의한 내정간섭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日

本과의 경제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日本의 군국주의화 경향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려와 경고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中華主義」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 현대화와 국제협력은 이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취급하고 있기에 향후 중국의 독자적 행보는 더욱 가시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에 따른 내정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對美依存的인 저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민족주의는 이미 19세기부터 그 강도가 잘 알려왔고, 현재까지도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은 세계를 수차례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의 막강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러시아 민족주의적 재흥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듯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개별적인 전략입장과 자세는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北韓의 자세에 따라 北韓·日本간의 국교수립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고, 美·北韓간의 관계개선 가능성이 급속한 속도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韓·中國교수립 또한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하에서 각자가 뒤질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 지배적인 상태이다. 남북한간 통일을 향한 협상이 급속히 진전된다면 다 말할 나위가 없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급전되지 않더라도 머지않아 동북아에 있어서의 정치·군사적·경제적 관계양식은 대폭적인 변화를 몰고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상과 같은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국가간 관계 양식 및 형태 변화와 그 결과는 各國家의 國民感情과 民族感情과 직결되게 마련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신국제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처 양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민족통일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현실은 주변국가들에 비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경제 및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취약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대립함에 따라 주변열강들간의 협상과정에서 조종·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신은 우리의 민족정신과 민족혼, 그리고 단합된 민족의지와 민족적 정열인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현 시점은 한국민족주의의 창조적·통합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하겠다.

Ⅲ.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그러면 新國際秩序形成期에서 우리의 民族主義는 어떠한 肯定的 의미를 갖는 동시에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學術的, 運動理論的 차원에서 주장되어온 한국민족주의 내용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크게 5가지로 대별된다.

- (1) 民族正體性的 認識과 民族自尊의 高揚
- (2) 反帝·反封建의 民衆主義 出現
- (3) 民主主義 意識의 政治運動化
- (4) 自主獨立意志와 運動力
- (5) 近代化의 意志

그리고 이상의 개념구성을 바탕으로 하여 “韓國民族主義의 과제”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수많은 當爲論이 주장되어 왔다. 해방 이후 1980년대말까지의 민족주의 학술 논술 중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일주제는 「통일」로 전체의 25%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民主主權의 확립」(17.1%), 「對外的 自主」(14.8%), 「근대화 혹은 발전」(11.8%) 순이다. (拙著 「한국 지식인과 대학생의 민족주의 의식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1호 참조)

이러한 분류결과를 볼 때 한국민족주의에 관련된 意識의 고리는 統一문제와 自主 문제에 일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기별 특징의 하나로는 80년대 이전에는 「近代化」의 과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음에 반해 80년대에 들어서는 民主主權의 확립 과제의 중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었고, 民族主體性과 民族共同體 形成의 과제가 새로이 강조되기 시작했음을 목격한다. 이는 과거의 國家主導의 民族主義論의 취약성에서 탈피하여 全市民的 主도의 민족주의 본명을 찾아나간다는 의미와 함께, 점차 한국민족주의를 논할 때 愛族 및 전통적인 民族正體性的의 중요성에 대한 再認識이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선정은 한국민족주의를 논해 온 논자들이 객관적 상

황조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행위로 옮겨나가기 위한 신념체계를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구체적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주장되어 온 내용은 크게 對外的 次元과 對內的 次元으로 대별될 수 있다. 對外的 次元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확립」 「사회구조의 개혁」 「민주사회주의적 정책의 제고」 「창조적 Elitism」 「통일이념의 제고」 「주체적 정치문화 창달」 등이 주장되어 오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80년대에 들어서 후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對外關係的 현실을 인정하면서 실질적 國益의 추구라든가 近代化 및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식의 실용주의적 처방보다는 “對外的 종속을 극복하기 위한” “自主外交”라든가 “反外勢”를 주장하고 “主體的 文化”를 창달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피력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내적 차원의 민족주의 이상 실현주장에 있어서도 國家 및 社會政策的 方向으로서도 政治社會의 構造的 개혁과 民主化의 연계를 점차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야 및 운동권 학생의 주장을 예외로 할 때 민족주의와 급진적 이념과의 접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상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개념, 과제 그리고 실천방안에 대한 논술들은 최소한 이론적 수준에서 그 내용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 대단한 호소력과 합리적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신국제질서형성과정에서 우리 민족 단위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다.

IV. 한국민족주의의 지향 방향

그러나 문제는 이렇듯 논술적 차원의 한국민족주의론이 실천적 운동으로 전화되는 운동적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 쟁점은 한국민족주의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의 주체 혹은 주도세력이 누구여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한국 민족주의의 不具化현상이다.

물론 서구 민족주의의 초기 전개과정을 보면 (프랑스의 예가 대표적임) 기존의 절

대왕정을 부정하고 “市民”이 주체가 되는 國民主權的 共和政의 수립과정과 더불어 근대민족주의는 탄생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市民”은 당시 全 人口를 포함하기 보다는 부르조아 계층을 대변하는 것이었기에 전체 인구중의 한 부분이 민족주의 주도세력이었다고 이론적으로 주장될 수는 있다. 그리고 많은 反植民 民族主義의 경우 西歐교육 이수자 계층에 의한 민족주의의 전개 양식이 있었고, 신생국에서는 국가 엘리트에 의한 “개혁민족주의” 주도가 있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민족(국민) 구성원 중 일부계층 혹은 일부세력(중산층 혹은 민중)이 주도가 되어 민족주의 이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주장에 대해 최소한 이론적으로 나무랄 것은 못된다.

그러나 한국 민족주의 논의는 우리의 현실 상황에 바탕둔 것일 때에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서구와 달리 人種的 同質性, 文化的 同質性 그리고 이미 日帝 이전에 共和政은 아니나마 우리 나름의 국가 체제가 존속되어 왔다. 거기에다 현 상황은 南北統一이 한국 民族主義의 궁극적 목표로 합의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구나 제3세계의 민족주의 이념과 운동에 비하여 우리의 민족주의는 그것이 긍정적일 때 훨씬 강력한 역사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는 국가대로, 보수 엘리트는 그 나름대로 엘리트중심의 “개혁 민주주의” 혹은 “근대화 민족주의”만을 주장하고, 재야 및 운동권 세력은 그들 나름대로 反帝民族主義 혹은 社會矛盾 극복을 위한 “民衆解放革命論”에만 몰두하면서 첨예한 계급대립과 민족주의 주체논쟁에만 몰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민족공통의 목표인 民族統一과 통합적 민족번영이 아닌 民族分裂을 심화시켜가는 측면을 노정시키는 것이다.

특히 신국제질서 형성의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당면과제는 민족통일과 첨예한 민족주의적 국제 경쟁체제하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고 독립자존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족통일이란 우선 우리 남한에서부터의 민족주의 이상과 민족적 단합이 이뤄진 후 민족주의 열기가 충천하여 북한 거주 민족을 전 민족적 민족주의 대열에 통합시킴으로써 현존 남북 정치형태와 권력구조를 일원화시켜 나갈 때 달성되는 것이다. 반대로 계속 민족이 남북으로 그리고 동서로, 보수와 혁신, 엘리트와 대중으로 분열된 채로 신국제질서의 형성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민족의 非安定, 非自尊, 非繁榮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민족주의는 신국제질서를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민족주체성과 민족열정에 바탕을 둔 창조적 이념이요 효율적 실천운동이 되어야 한다. 냉전체제하에서 닫혔던 마음은 열려야 하고, 비뚤어진 자세는 바로 되어야 하며 흩어진 부분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겠다.